

‘개인이익 vs 사회이익’에 대한 국민의식 종합 분석

■ '개인의 이익 vs 사회전체 이익' 에 대한 국민의식

- _ 개인 이익 중시 32% vs 사회전체 이익 중시 21%
- _ 2040세대 개인이익 중시 흐름, 매우 안정적

■ 유형별 특징 1 : 대한민국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 _ ‘개인이익 중시층’, 대한민국 현실에 비판적
- _ ‘개인이익 중시층’,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 _ ‘마음에 드는 정당’ 여부, 가장 낮아

■ 유형별 특징 2 :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 _ ‘보편적 가치’ 있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동의
- _ ‘개인이익 중시층’,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낮다고 판단
- _ ‘개인이익 중시층’, 일반국민과 사회에 다소 부정적

분석개요

분석대상	2021년 3월, 4월, 5월, 6월 조사결과 (1) 2021년 3월 5일(금) ~ 3월 7일(일) (2) 2021년 4월 9일(금) ~ 4월 11일(일) (3) 2021년 5월 7일(금) ~ 5월 9일(일) (4) 2021년 6월 4일(금) ~ 6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각 조사일 전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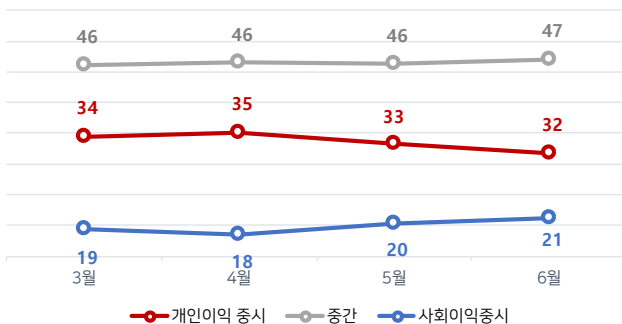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이익 vs 사회전체 이익'에 대한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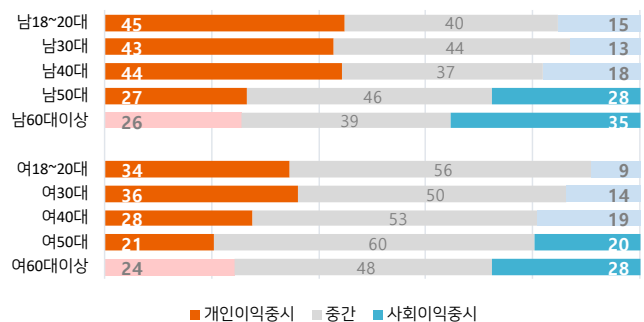
□ 개인 이익 중시 32% vs 사회전체 이익 중시 21%

- 우리 국민들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중에서 '개인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내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중간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임
- 조사를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 6월까지 '중간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개인이익 중시층'이 '사회이익 중시층'보다 높은 비중을 유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성/연령대별 특징이 뚜렷한데,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이익 중시층'이 많고, 같은 연령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음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 개인이익 중시층이 많고,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지역, 직업, 소득 등에서는 별다른 특징 없이 국민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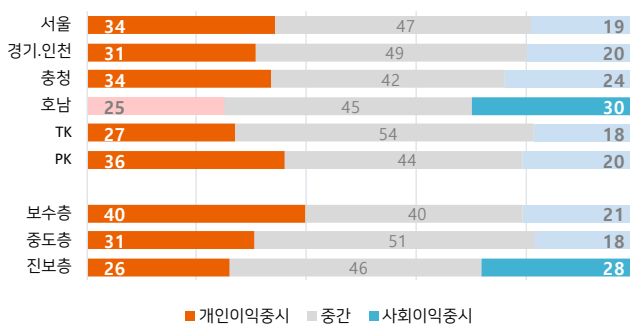
'이익중시 유형' 비중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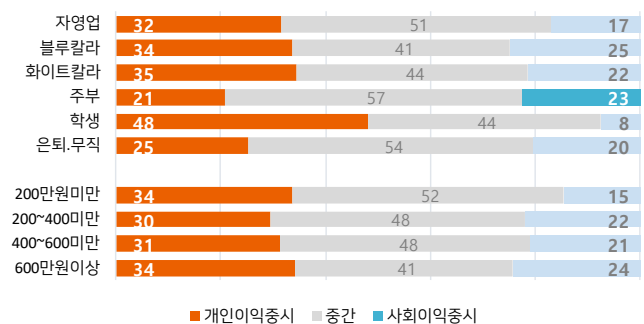
6월 '이익중시 유형' 비중: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6월 '이익중시 유형' 비중: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6월 '이익중시 유형' 비중: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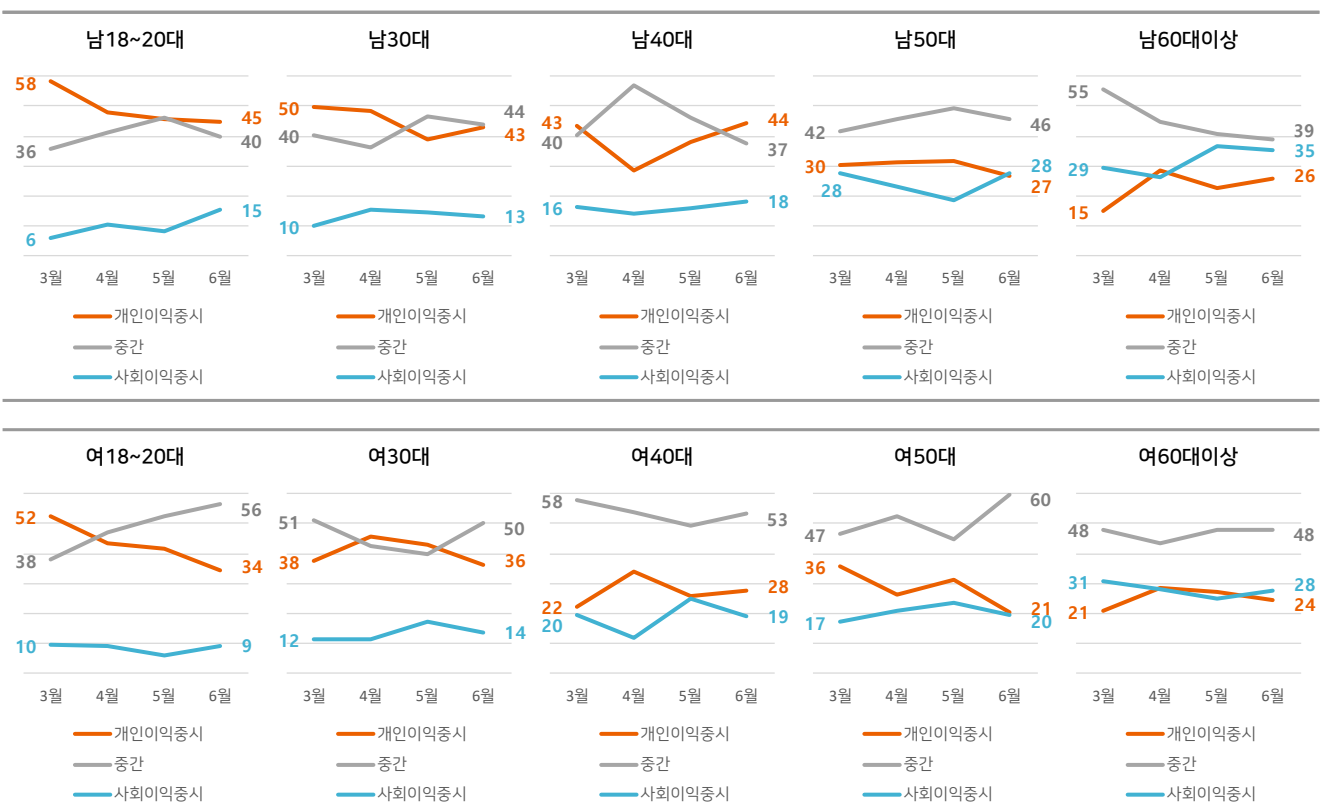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건강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이 더 많은 한국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 특히 2040세대에 '개인이익 중시층'이 많아,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보다 분열(개인화)의 기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40세대 중심의 '개인이익 중시층'의 대두는 지역, 직업, 소득 모두에서 확인되는 매우 뚜렷한 흐름임
-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에서 주목되는 점은 진보층에도 '개인이익 중시층'이 상당하다는 점으로, 탄핵 이후 진행된 '보수의 재구성'에 이어 '진보의 재구성'이 국민들로부터 강제되고 있다는 지적임

□ 2040세대 개인이익 중시 흐름, 매우 안정적

- 2040세대가 주도하는 '개인이익 중시' 흐름은 지역, 직업, 소득, 나이가 주관적 이념성향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뚜렷한 흐름임
- 3월 ~ 6월의 성/연령대별 이익중시 유형 비중을 살펴보면, 2040세대의 '개인이익 중시' 흐름은 매우 안정적인 특징을 보임
 - 특히 남녀 2030세대는 '사회이익 중시층' 비중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경향이 뚜렷함
- 이에 비해 5060세대는 상대적으로 '개인이익 중시층'과 '사회이익 중시층' 비중이 엇갈리거나 비슷한 등 혼란스러운 양상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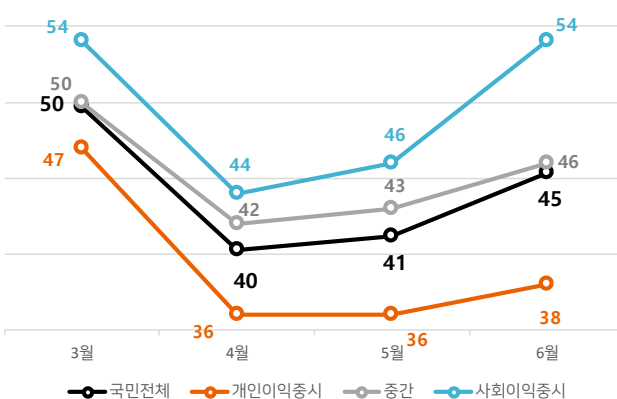
- ☑ '개인이익 중시층'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말과 같음
 - :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 우리사회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추락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구심점이 약해지는 등 국가적 위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주를 이루게 됨
- ☑ 그러나 '개인이익 중시층'의 대두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구축된, 부정할 수 없는 '실재'임
 - : 이 점에 주목하면 공동체 이익을 중심으로 개인이익을 대비시키던 기존의 사고와 관념을 바꿔, 개인이익을 중심으로 공동체 이익을 대비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 즉, 사회 건강성 약화와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기보다, 국민들의 개인이익 중시 흐름을 수용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체 이익 증대 방안과 국가 비전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임
 - : 앞서 언급한 보수의 재구성, 진보의 재구성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이익 중시' 흐름에 기반해 보수-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임
- ☑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신자유주의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각국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자 과제임

유형별 특징 1 : 대한민국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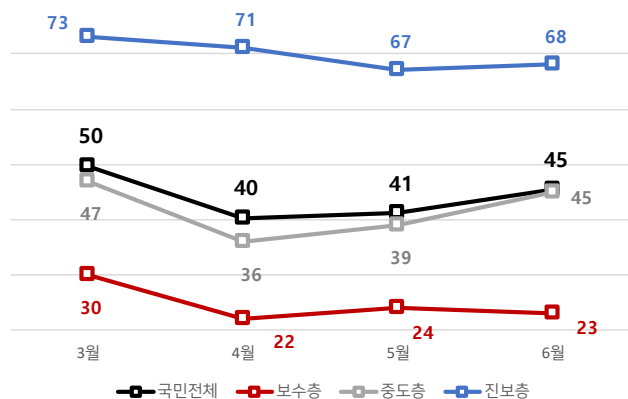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층', 대한민국 현실에 비판적

-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평가를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이익 중시층'과 '중간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긍정적이지만 '개인이익 중시층'은 비판적임
 - 이러한 양상은 3월부터 6월까지 일관되며, 국민전체 평가와 비슷한 곡선을 그리면서 조용하고 있음
 - 참고로 이념성향별 대한민국 방향성 긍정평가를 추이를 보면, 국민전체 여론과 무관하게 진보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수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뚜렷함
- 경제방향성 긍정평가율에 있어서도 '개인이익 중시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비판적임
 - '사회이익 중시층'과 '중간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념성향별 경제방향성 긍정평가율 역시 진보층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보수층은 언제나 부정적인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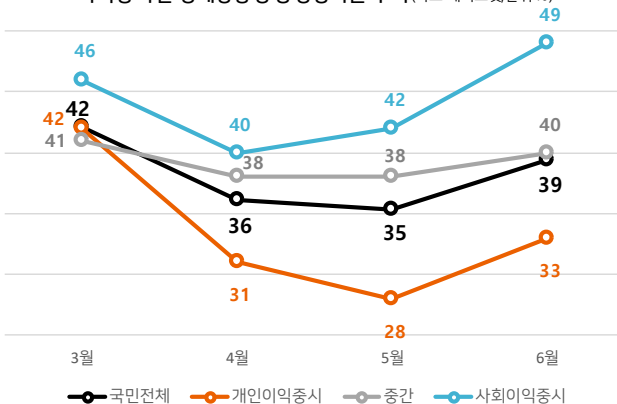
이익중시별 대한민국 방향성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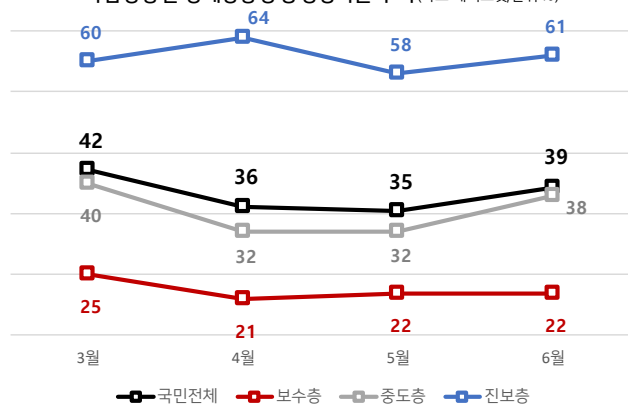
이념성향별 대한민국 방향성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이익중시별 경제방향성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이념성향별 경제방향성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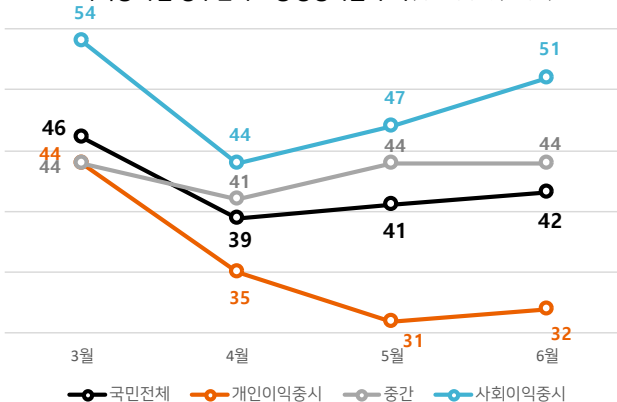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이익 중시층'은 대한민국 방향성과 경제방향성 모두에 걸쳐 비판적이며, 국민전체 여론과 조용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성향을 나타냄
- ☑ 한편, 이념성향별 긍정평가율은 대한민국 현실과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언제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적 평가' 경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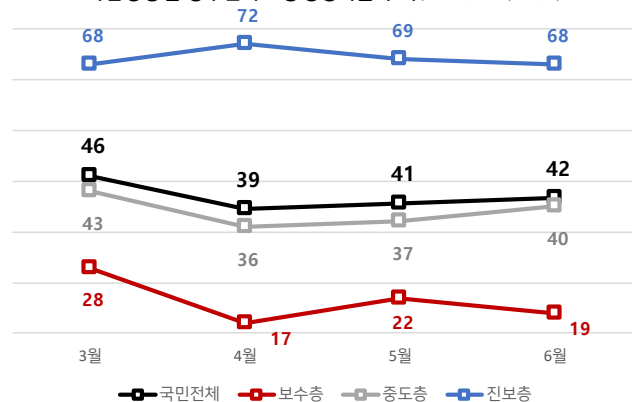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층',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 '개인이익 중시층'은 전반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함
 - 정부신뢰도 긍정평가율 그래프의 3월 시점을 보면, 국민전체적으로 신뢰도가 46%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개인이익 중시층' 역시 44%의 신뢰도를 보임
 - 그러나 국민전체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인이익 중시층'은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섬
 - 참고로 이념성향별 정부신뢰도는 국민전체 여론과 큰 차이를 둔 채, 진보층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보수층은 언제나 부정적임
- 정부정책 만족도에서도 '개인이익 중시층'은 국민전체 여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이념성향별 정부정책 만족도 긍정평가율 역시 진보층과 보수층은 국민 전체여론과 거리를 두고서는 긍정/부정 평가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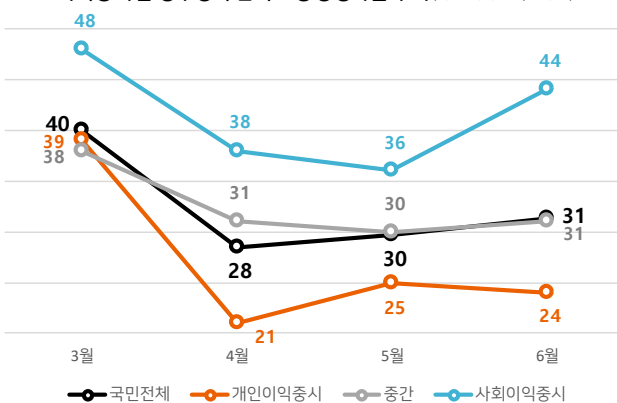
이익중시별 정부신뢰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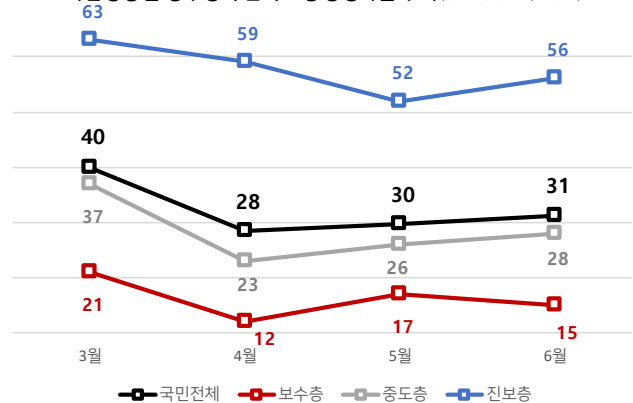
이념성향별 정부신뢰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이익중시별 정부정책 만족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이념성향별 정부정책 만족도 긍정평가율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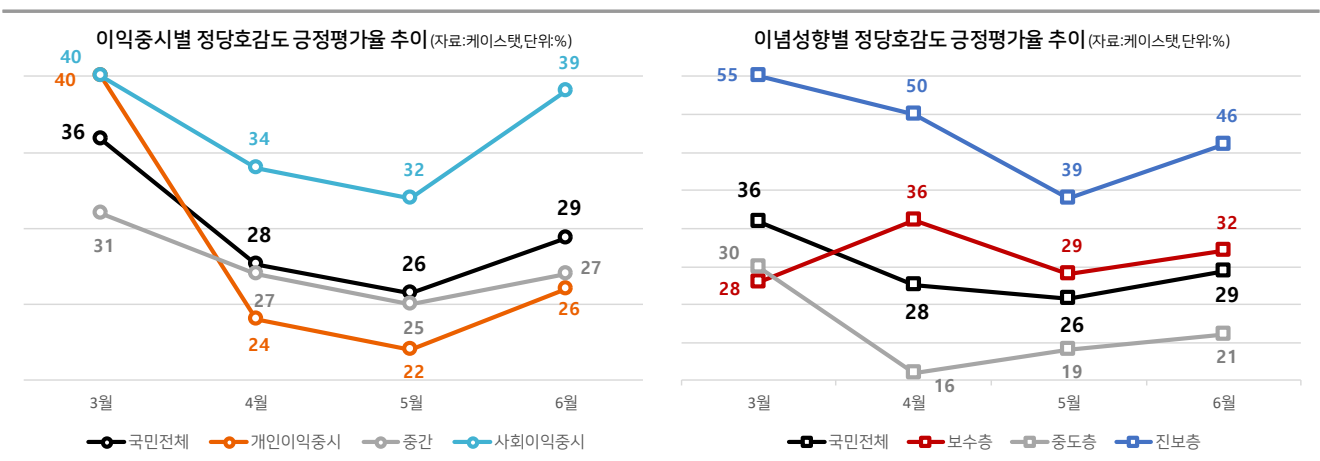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이익 중시층'은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 때로는 신뢰를 보내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임
- ☑ '사회이익 중시층'은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한 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함
- ☑ 즉,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모두 이념성향별 평가와 달리 고정적 평가가 아닌 '현실'을 평가하는 양상임

□ '마음에 드는 정당' 여부, 가장 낮아

- “요즘 우리나라 정당을 돌아볼 때,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세요?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긍정평가를 살펴보면 ‘개인이익 중시층’이 가장 낮음
 - ‘개인이익 중시층’은 3월 시점에서만 ‘있다’는 응답이 국민전체보다 높은 40%를 기록했을 뿐 이후에는 국민전체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사회이익 중시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있다’는 응답이 높음
- 한편, 이념성향별 정당호감도 긍정평가를 살펴보면 진보층은 ‘있다’는 응답이 국민전체 여론에 비해 월등히 높고, 보수층은 국민전체 여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임
 - 중도층은 국민전체 여론보다 낮은 수준의 긍정평가를 나타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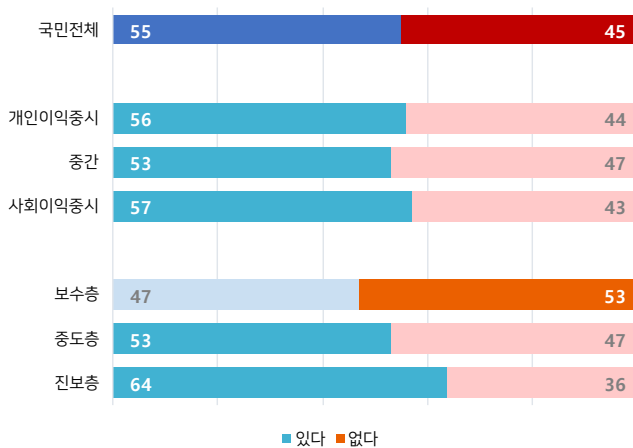
- ☑ ‘개인이익 중시층’은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 경제방향성, 정부신뢰도, 정부정책 만족도에 이어 지금의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즉,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정치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고, 바뀌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됨
 - :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익 중시층’의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 여론과 조용하면서 현실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임
- ☑ 한편, 이념성향별 정당호감도에 있어 진보층은 ‘있다’는 응답이 높고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러한 생각이 각 정당의 ‘변화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 즉, 진보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 현실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있다’는 응답이 많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낮아지는 것임
 - :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낮는데, 그만큼 대표적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많아지고, ‘이준석 대표 당선’이라는 파격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됨

유형별 특징 2 :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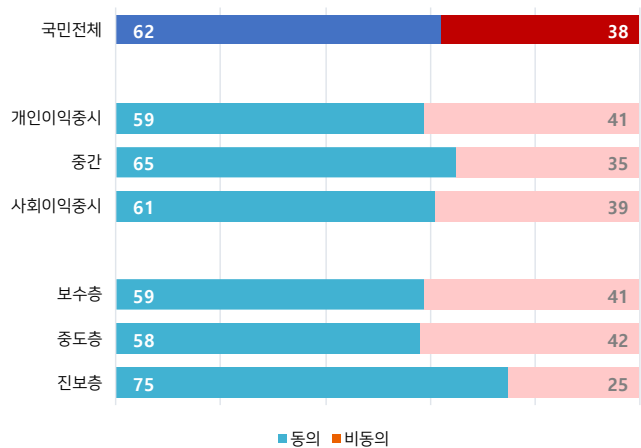
□ '보편적 가치' 있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동의

- 우리사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개인이익 중시층'과 '사회이익 중시층', '중간층'의 응답은 거의 비슷함
- 먼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익 중시별 세 가지 유형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있다'고 응답함
 - '개인이익 중시층' 56%, '중간층' 53%, '사회이익 중시층' 57% 등으로 국민전체 여론과 유사함
 - 참고로 이념성향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보수층은 '없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진보층은 '있다'는 응답이 우세함
- 또한 '사회적 약자'가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익중시별 세 유형의 동의 수준이 비슷함
 - '개인이익 중시층' 59%, '중간층' 65%, '사회이익 중시층' 61% 등으로 이 역시 국민전체 여론과 유사함
 -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에 비해 진보층의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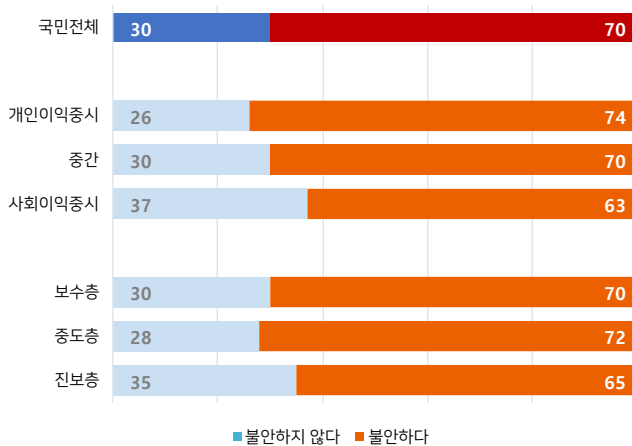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전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이익 중시층'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긍정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동의한다는 점은 주목되는 지점임
- ☑ '개인이익 중시층'은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적 약자'가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 동의 수준 역시 국민전체와 비슷해, 이들 '개인이익 중시층'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다른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개인이익 중시층'이라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사회공동체를 인정하는 태도임
 - : 즉, 본 보고서 서두에 언급한, “개인이익 중시층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말과 같다”라는 지적은 이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틀린 명제임
- ☑ 이익중시별 세 가지 유형, 특히 2040세대가 주도하는 '개인이익 중시층'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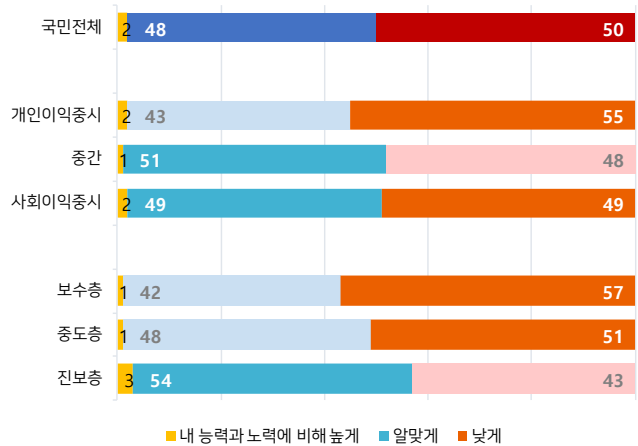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층',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낮다고 판단

-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에 있어 '개인이익 중시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표함
 - 개인이익 중시층은 '불안하지 않다' 26%, '불안하다' 74%로 국민전체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임
-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인이익 중시층'은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응답이 55%로 높음
 -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응답은 43%이고,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응답은 2%에 그침
 - 이러한 응답 역시 국민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음

삶, 미래에 대한 불안여부 (자료:케이스탯 2021.05.09조사,단위:%)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 생각 (자료:케이스탯, 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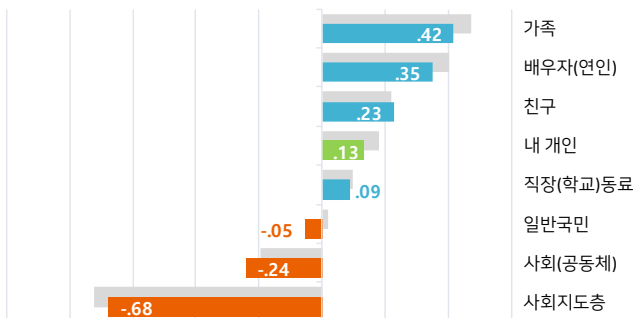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이익 중시층'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삶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반발이 '사회전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로 외화된 것으로 분석됨
 - : '개인이익 중시층'을 주도하는 2040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고민이 묻어 있고, '공정'을 중시하는 세대적 특성의 근원을 알 수 있음
- ☑ 케이스탯에서 한국민 불안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40세대의 불안 정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6호 『한국민 '불안 의식' 진단 및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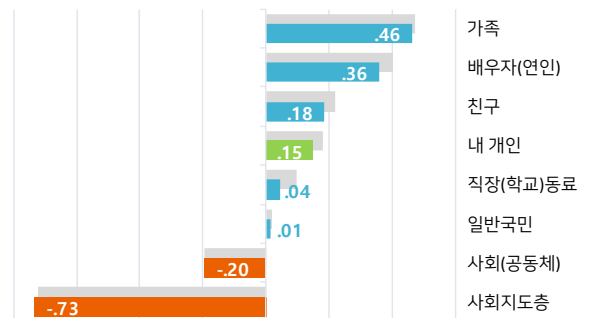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층', 일반국민과 사회에 다소 부정적

- 코로나19 사태 1년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개인이익 중시층'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일반국민'에 대한 생각이 다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
 - 조사는 '변화 없다' 0점을 기준으로 나빠졌다면 마이너스 점수를 택하고('매우 나빠졌다' -2점, '나빠진 편이다' -1점), 좋아졌다면 플러스 점수를 택하도록('좋아진 편이다' 1점, '매우 좋아졌다' 2점) 진행됨
- '개인이익 중시층'은 '일반국민'에 대한 생각이 -0.05점으로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균 점수로, 국민전체적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생각은 0.02점으로 소폭 좋아짐
- 또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생각 역시 -0.24점으로 국민전체 평균점수(-0.20점)보다 소폭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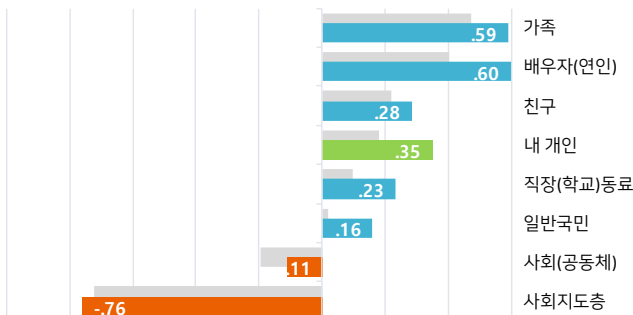
코로나19 1년,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개인이익중시층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코로나19 1년,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중간층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코로나19 1년,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사회이익중시층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개인이익 중시층'이 이기적인 태도와 다른 면모를 보이지만, 일반국민과 사회(공동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임
 - : 즉, 일반국민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전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것임
- ☑ 이는 앞서도 언급한 삶에 대한 불안감과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반발이, 자신 외의 일반국민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표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세대는 2040세대이고, 그중에서도 2030세대의 표심이 가장 중요함
 - : 이러한 측면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사회전체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특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 핵심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전체 이익'을 중심으로 '개인 이익'을 포섭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전체 이익'을 포섭하는 방향과 공약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 스탓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케이 스탓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 스탓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 스탓 리포트] 32호 '2030세대 특별판' 발간 안내

32호는 『2030세대 특별판 : 연애 · 결혼 · 출산 · 육아의식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7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